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7년 3월 17일(금)
(음력 2월 20일)
Пятница
17 марта 2017 г.
№ 10(116727)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3월 19일은 러시아에서 상업 · 일상서비스분야 · 주택공공경리 근로자들의 직업명절이다.
이선영씨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돔 븨타의 사진관 사진사다. 그는 사진사전문교육을 받은 후 이미 40여년간 사진사로 활약하고 있다. 그동안 고급전문가가 되어 이제는 고객들의 주문으로 바쁘다. **(이예식기자 촬영)**

오하구역 시장으로 공산당 소속 세르게이 구세브가 당선

지난 12일(일) 오하구역에서 시장선거가 있었다. 선거예비자료에 따르면 공산당 소속의 세르게이 구세브가 당선되었다. 그는 찬표 50,71% (3811명), 그의 상대 <예지나야 러시아>당(통합당) 소속 강 제니스는 사할린주 주택공공경리부 차관으로서 36,47% (2741)의 찬표를, 그외 출마한 올가 타라카노와, 인나 찌쉬코베츠, 마르가리타 필리뽀와 후보는 얼마 되지 않는 찬표를 얻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세르게이 구세브의 승리는 그가 오하 지역 출신이고 제니스 강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신뿐만은 아니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무튼 <예지나야 러시아>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지 못한 데에 대해 동당 사할린지부와 주정부 관계자들은 조심스럽게 분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월) 사할린주지사 올레그 코제먀코는 오하 시장 당선자인 세르게이 구세브를 축하하고 주정부는 주민들을 위한 지방개발프로그램에 지도자의 당 소속과는 관계없이 모든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국민으로서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러 선거장에 나온 유권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선거인 중 36,25%가 오하구역 투표소를 찾아왔는데 비교적 높은 선거율이다.

한편 이번 시장선거는 사할린주에서 마지막이다. 얼마 전에 주두마는 지방자치체 시장 선거 대신 시티 매니저 부임에 대한 법안을 채택했다. **(본사기자)**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 대표단 사할린 방문

지난 14일(화)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이 사할린주를 방문했다. 안드레이 코노코찐 스포츠프로그램 담당자와 알렉산드르 그루신 올림픽준비협력국 국장, 올림픽 참가확보부 부장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사할린주 스포츠청소년정책부 예고르 움노브 차관과 만나 러시아 동계스포츠 종목 대표팀들이 2017 평창 동계올림픽을 겨냥한 마지막 단계 훈련을 사할린에서 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면담 후 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은 <고르늬 워스두흐>스키장, 파르코와야 산, 공사 중인 스키 바애슬런단지를 비롯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일부 스포츠시설을 돌아보았다.

사할린, 17일 극동컵 알파인 스키 국제대회 스타트

17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 <고르늬 워스두흐>스키장에서 극동컵 알파인스키 국제대회 (Far East Cup) 결승전을 시작한다. 경기에는 러시아, 일본, 한국, 중국, 카자흐스탄,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등 선수 20여명이 참가한다.

Far East Cup은 4단계로 나뉘어 중국, 한국, 일본과 사할린에서 진행되는 국제 알파인스키 대회다. 사할린은 이미 세번째 극동컵 참가선수들을 맞이하고 있다.

주최 측은 15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회에 세계대회 및 유럽대회에서 수상한 최우수 선수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새고려신문

2017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7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5루블리 79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단신

제1회 <아시아 아이들>동계게임 날짜 정해져

모스크바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에서 <아시아 아이들>국제동계스포츠게임 국제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소집된 가운데 회의에서 제1회 <아시아의 아이들> 국제동계스포츠게임 실시 날짜를 설정했다. 경기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2019년 2월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전에는 게임을 2018년에 할 계획이었는데 사할린주스포츠청소년정책부의 요청으로 게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알렉세이 벨리크, 주경제발전부 장관 대행 맡아

얼마 전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부시장으로 있던 알렉세이 벨리크가 사할린주 경제발전부 장관 대행으로 부임되었다.

경제개발 장관의 업무는 본 경제발전부 차관 세르게이 카르펜코가 장기간 대행해왔으나 장관 대행의 부임 소식과 함께 카르펜코는 자신의 직무인 차관 업무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알렉세이 벨리크는 2016년 3월 부터 주택정책, 경제개발, 재정, 상업과 교통 등 문제를 담당하는 부시장으로 활약했고 이전에 그는 러시아연방 농업부에서, 러시아정부 소속 모기지대출청에서 근무했으며 바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오기 전에는 극동 인적자원개발청에서 주택 및 사회복지 프로젝트들을 담당했었다.

사할린국립대, 일본 <소데코>석유가스회사와 협약 체결

지난 15일(수) 사할린국립종합대학교와 <소데코>일본회사가 협력협약을 체결했다. 협정문서에 따르면 5년간 교육과학 및 문화교환 프로그램의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협정안에는 일본의 대학과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지질학, 지구과학, 유전 – 가스기술 방면에서 사할린의 기술과학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과 사할린 학생들의 일본 석유가스매장, 가공공장 등의 견학과 연수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소데코>는 <엑손 넵체가스 리미테드>컨소시움의 한 주청이고 사할린주와 이미 40년 동안 협력해오고 있다. 이번 협약체결식에는 사할린주정부 드미트리 네스께로브 부수상, 주유즈노사할린스크일본총영사 류이찌 히라노, <소데코> 대표이사 마사오 푸지아타 등이 참석했다고 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대구 청년 대표단, 사할린 방문

지난 15일(수) 저녁에 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 하태균 회장을 비롯 총 1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해마다 <대구의 밤>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사할린을 찾아온 이 한국 단체는 이번에도 역시 16일 <대구의 밤>을 가졌고 이에 앞서 코르사코브 망향의 언덕을 찾아 사할린희생동포위령탑에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단 일정에는 주한인회, 노인회, 이산가족협회, 주의회, 사할린인문기술대학(전 유즈노사할린스크경제법률정보대학), <에트노스>예술학교, 새고려신문사 등 방문을 잡은 후 19일(일) 귀국할 예정이다.

사할린방문을 앞두고 청년협의회 하태균 회장이 동포들에게 메시지(3면 게재)를 보냈다.

사할린은 낯설지 않고, 따뜻하고 정다운 곳입니다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신임 원장과의 인터뷰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2월 말에 사할린한국교육원 신임원장으로 **김주환**(60)씨가 부임됐다. 본사 **배순신** 기자가 교육원을 찾아 김 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소개 인터뷰를 부탁했다.

–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원장님을 유일한 동포신문 독자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 우선 원장님의 이력이 궁금합니다.

– 저는 한국에서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은 경기대학교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한 17년 정도 현장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을 하다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장학사를 하면서 교육행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 교감, 중고등학교 교장을 7년 정도 하고 이곳 사할린에 2017년 3월 1일자로 원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 사할린에 오셔서 느낀 첫 인상은요?

– 한국에서 '사할린'이라고 하면 '날씨가 추운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오게 되었습니다. 막상 와보니 제가 2월 25일날 도착했는데 이야기하는 대로 '춥다'라는 느낌은 받지 않았구요. 도리어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할린은 잘 모르는 세계잖아요. 그러나 '아, 여기도 같은 사람이 사는 따뜻하고 정다운 곳이구나'라는 첫 인상을 받았고 지금도 춥고 낯설다는 느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동포들이 많이 계셔서 좋습니다.

– 사할린한인사는 좀 아세요?

– 인터넷이나 책자를 통해서 사전에 정보를 알았습니다.

– 평생 학교교육에만 종사하셨는데 사할린을 왜 지원하셨는지요?

– 저는 한국에서 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외국에 나가 한국교육기관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 나라에 한국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중국쪽이나 사할린쪽, 동포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 가려는 목표를 크게 잡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금년에 사할린한국교육원 자리가 나서 지원했습니다. 사할린은 동포들이 많은 곳이고 역사를 볼 때에도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교육원장으로서 우선적으로 무엇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 앞에 원장님께서도 여러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전 원장님들이 계획하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점검하고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가는 방향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부족하고 확장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해보자고 합니다. 한국교육원이 해야 할 일이 한국어교육을 조금 더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한 한국 문화를 사할린지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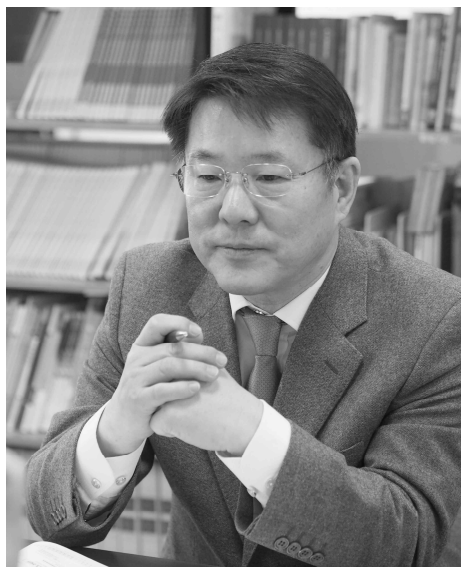
– 제가 알기엔 교육원장님의 업무 중 하나는 문화축제 개최인데 올해는 사할린 주민들이 어떤 문화 행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 한러 문화축제를 매년 실시해왔는데 금년에도 계획이 돼 있고 예산도 배정돼 있습니다. 계속 해오던 것을 조금 더 발전시킬수 있는 것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장원창 전임 원장님과 한국에서 만나서 인수인계를 했는데 올해 문화축제 같은 경우 전 원장님께서 김덕수 사물놀이팀, K-팝 팀이라든지, 사할린에 이미 온 적이 있는 서울문화예술학교 팀 등을 제안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올해 상황에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초청대상자나 프로그램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사할린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교수, 한국어채택학교 선생님, 그리고 한인단체 지도자들과는 인사를 나누셨는지요?

– 제가 온 지가 오늘 20일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물론 한국영사출장소장님, 한인회 대표이신 박순옥 회장님, 김홍지 부회장님 등 그런 분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고 교육원을 찾아오신 사할린지역 여러 관계자들과도 인사를 나누었구요. 사할린국립대 임 엘위라, 코르녜에와 한국어교수도 뵈었는데 이 분들이 한국어 전파하는 데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지난 주에 코르사코브 제2중학교 (한국어채택학교)에서 발표회를 했는데 그중



한국어발표회도 있어서 공식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코르사코브 제4중학교에서 한국어대회에 초대받고 가볼 예정입니다. 코르사코브에서 이태출(이태준) 한인회 회장님과 만났는데 한글교육과 동포사회를 잘 이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망향의 언덕을 찾고 비석에 새겨진 글을 보면서 민족성을 키워서 힘을 가지는 그런 민족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사할린의 어르신들과는 만나보셨는지요?

교육원 노래교실이 어르신들 중심으로 돼 있더군요. 세계여성의 날 전날 3월 7일에 수업이 있어서 수업 전에 나름대로 여성의 날 잔치를 준비하셨더라구요. 케이크와 고비나물 등등, 같이 가서 말씀도 나누면서 그 정도로 어르신들을 뵈었어요.

이번 대구의 밤 행사에 노래교실의 어르신들이 거기서 노래를 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거기에 가서도 어르신들을 뵈려고 합니다.

- 가족과 함께 오시나요?

– 저에게 딸 둘이 있는데 결혼한 둘째가 지난 3월 9일 손녀딸을 낳아 이제 제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맏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사여서 딸들은 함께 하기가 어렵구요. 아내는 초등학교의 교장으로 사무하기 때문에 방학 때만 잠시 들어와서 같이 있을 예정입니다.

– 특별히 좋아하시는 계절은요?

–저는 가을을 좋아해요.

–좋아하시는 색깔은요?

–희망을 나타내는 하늘색을 좋아합니다.

– 좋아하시는 표현이나, 좌우명이나, 명언이 있으신지요?

– 저의 집안에 가훈이 있어요.

<항상 웃자!> 입니다. 기뻐도, 슬퍼도 웃자입니다. 웃을 수 있다면 삶의 지표가 긍정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웃자 라는 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웃자!>는 가훈을 말합니다. 이것은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서 긍정의 힘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자는 뜻이기도 하고 좀더 배려하고 나누는 삶을 살자는 의미도 들어 있지요.

조금 더 내것을 나누고 남을 배려하면서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의 웃음을 뜻하기도 하고요.

–사람의 어떤 성격을 좋아하시는지요?

한국적 표현으로 <우유부단하다>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좋고 한 성격이죠. 저는 이런 성격을 나쁘다 보지 않고 이런 성격을 좋아합니다. 저도 좀 그런데, 너무 강해서 적을 만들거나 너무 약해서 꺾이지 않는 적절한 성격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교육행정직에서나 교장직에서도 이런 성격으로 선생님들이 어려움 속에서 털어놓는 고충을 들어주면서 해결해 주고, 이해시키는 입장에 서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성격으로 일해왔습니다.

– 신문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요?

– 한국에 있을 때도 새고려신문이 사할린 한인사회에 정보를 전달하고 한인사회를 하나로 뭉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한인들이 러시아와도 잘 연결 되도록 다리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도 저는 나름대로 새고려신문을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김원장은 책상 서랍을 열고 짧은 기간이나마 모은 신문을 보여주었다.)

교민과 러시아분들, 사할린 한인들에게는 귀한 정보매체라고 봅니다.

신문을 보시는 분들도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 주셔서 새고려신문이 사할린뿐만 아니라 더 널리 소식을 전하는 소식지가 되길 바랍니다.

–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구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모저모

사할린 청년 전문가들 전국 기능챔피언대회(월드스킬스)에 참가

사할린주 청년 전문가들은 전국기능챔피언대회 준결승전에 참가하기 위해 사할린을 떠난다.

전국단위 대회에 도서주민 20명이 참가하는데 그중 그래픽 디자이너, 기계공, 요리사, 관광전문가, 제빵사, 교사, 차정비공, 용접공, 배관공, 전기공, 조경사 등이 15개 부문에서 실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대회는 콤소몰스크-나-아무레, 울리야놉스크, 야쿠츠크, 모스크바와 모스크바주 등 러시아 각 도시들에서 펼쳐진다.

준결승 대회 후 우수 직업대표자들은 크라스노다르에서 개최될 결승 대회에 나서고 결승 결과에 따라서 최종 우승자들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러시아 대표팀으로 구성된다.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с Сахалина отправляются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й World Skills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правляются на полуфинальные испытания чемпионата рабочих профессий World Skills.

Всего с островов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й этап едут более 20 человек - графические дизайнеры, механизаторы, повара, специалисты по туризму, пекар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автомеханики, сварщики, сантехники, электрики, ландшафтные дизайнеры и другие, которые будут пробовать свои силы в 15 компетенциях.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йдут в разных городах России: Комсомольске-на-Амуре, Ульяновске, Якутске, Москве и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ле полуфинала лучш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офессий отправятся на финал, который пройдёт в Краснодаре. А по его итогам будет сформирована сборная России, которая выступит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этапах World Skills.

체호브 작품을 학생들이 연출한 단막극 공연에 사할린 주민들을 초대

3월 17일 오전 11시 <사할린 섬>체호브 책 문학예술박물관이 학생들의 연극연출 상연 관람에 모든 사람들을 초대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제8, 제11, 제23중학교의 6-11학년생들이 참가하여 <우유부단한 사람>, <사색가>, <기쁨> 등 단편 소설을 연출하여 상연한다. 어린 배우들의 상연작은 체호브 작품을 주제로 연출한 단막극으로 <사는게 좋다>와 <젠장, 계단으로 오르든지>를 상연한다.

전례대로 전문 심사위원들은 우수 창작단을 선발하고 특별 추천으로 최우수 남자 주연, 여자 주연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연극상연 콩쿠르는 <사할린 섬> 체호브의 책 박물관에서 이미 18회째 개최되고 있다.

입장은 자유라고 박물관 측은 밝혔다.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на просмотр школьных инсценировок по произведениям Чехова

17 марта в 11:00 литературно -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книги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приглашает всех желающих на просмотр школьных театральных инсценировок.

Учащимися 6-11 классов школ №8, 11, 23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удут показаны постановки по рассказам "Размазня", "Мыслитель", "Радость". Также в репертуаре юных актеров и мини-спектакли "Жить здорово" и "Блин, или вверх по лестнице", созданные по мотивам рассказов Чехова.

Традиционн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жюри выявит лучший творческий коллектив, а также отметит лучшую мужскую и женскую роли в специальных номинациях.

Конкурс инсценировок проходит в музее книги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в 18-й раз.

Вход свободный, сообщает музей.

<나의 행성>채널, 사할린에 대한 다큐멘타리 촬영

<여행과 관광>국제박람회에 참가한 사할린대표단은 <나의 행성>TV채털 대표 피디 올레그 테레호브와 НТВ방송국 새 프로젝트를 위해 사할린 촬영기획을 협정했다.

방송은 러시아의 관광 가능한 지역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더불어 제작진이 기본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모험적이고 가족적 휴양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8면에 계속)

"대구의 정 더 크게 나누겠습니다"

"아~ 사할린!" 희망을 노래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14번의 사할린방문을 통해서 한인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대구의 밤을 통해서 정을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동토의 땅! 사할린주 코르사코프항구 언덕에 배 모양의 추모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해방의 소식을 듣고 사할린 전지역에서 수십.수백리를 걸어서 걸어서 코르사코프항에 모였다.

비문에는 "이 분들은 굶주림을 견디며 고국으로 갈 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혹은 굶어 죽고, 혹은 얼어 죽고, 혹은 미쳐 죽는 이들이 언덕을 메우건만 배는 오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혹독했던 한인들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나라없는 설움. 가족과 고향을 뒤로하고 강제징용의 아픈 역사앞에서 굿굿하게 이겨낸 사할린한인!

현지에서도 한인들의 근면 성실함으로 정치 · 경제 · 교육 · 문화 전반에 걸쳐 지도자의 반열에서 활동하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대구의 청년들은 96-97년 고 이태용회장님께서 사할린 현지를 방문해서 후원사업을 시작했고12년 단절의 시간을 다시 연결해서 제가 9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사할린 현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사할린경제법률대학교 장학사업, 새고려신문사 후원, <에트노스>예술학교 후원, 코르사코브시 <바부쉬키늬 뻬스니> 예술단 후원. 녜웰스크시 예술학교 후원사업…

그리고 열 한 번째 개최하는 "대구의 밤"(15년에는 두번 개최)은 한인 어른신들을 모시고 공연과 만찬의 시간으로 대구사람들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대구에서 "사할린의 밤"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50명, 올해 200명의 영주귀국어르신들을 대구로 초청해서 관광도 하고 잔치도 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전국의 사할린영주귀국동포들을 모두 대구에 초대하고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구청년회와 사할린경제법률대학교의 자매결연 체결('09),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립오케스트라 초청공연('09), <바부쉬키늬 뻬스니> 민속무용단 초청공연(' 10, '14), 박 블라디미르 녜웰스크 시장 대구 방문(' 14), 사할린 경제법률대학교 학생 초청, 네벨스크시 청소년오케스트라(14.16) 대구문화체험('10~' 11), 하바로브스크 시립 <고블링카> 무용단 초청공연(' 15)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각별한 관계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대구청년들의 가슴속에 아~ 사할린의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대구청년들의 사할린동포 사랑은 영원합니다.

2017.03.15

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 회장 하태균

<에트노스> 학생, <행성의 미래>대회에 출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상트페테르부르그에서 <행성의 미래>청소년국제콩쿠르가 개최된다. 이에 러시아와 외국의 재능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30일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한민족예술과 <개나리>무용단(지도교사 김 예브게니아)은 이 대회에 참가초대를 받았다.

김 예브게니아 지도교사에 따르면 사할린주를 대표할 <개나리>무용단은 이 대회에서 쟁강춤과 바라춤을 소개할 거라고 밝히고 학생들이 민족의상을 차려입고 무용도구를 가진 복잡하고도 기술적인 연출로 우리 무용의 부가적 예술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쟁강춤과 바라춤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춤이나 지금까지 쌓아온 학생들의 높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개나리> 무용단의 이번 방문을 위한 항공권은 <로드늬에 오스트로와 (고향 섬들)>재단(이사장 강 알렉산드르)이 기꺼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재단 측은 사할린의 재능을 가진 청소년 지원, 영재 지원은 재단의 우선적인 활동 중 하나라고 밝혔다.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국내거주 · 정착 지원 입법 토론회

이명수 의원,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3월 17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의 국내 거주 · 정착 지원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명수 의원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는 총 4,387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사할린에 잔류한 한인들의 자유의사를 반한 일본의 고의적인 방기에 의한 특수성이 있는 문제로 국내 거주 · 정착 단계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의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복지시설 부족,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 사할린 가족과의 이산가족 문제 등 고국에서의 편안한 여생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하며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는 개선방안과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 유웅조 입법조사관이 발제를 맡고, 좌장인 인천대 노영돈 법대 교수를 비롯하여 외교부 동북아1과 이기성 과장,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이수연 과장, 대한적십자사 특수복지사업소 복지사업팀 유영남 팀장,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우복남 선임연구위원, 사할린동포귀국자모임 권경석 회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C뉴스041)

사.할.린.

얼어붙은 섬에 뿌리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

저자 최상구

(전호의 계속)

이후 1994년 한일 양국이 한일 적십자사를 통해 영주귀국 시범사업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재의 영주귀국 형태가 갖추어졌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영주귀국 '시범사업'이, 2007년부터는 영주귀국 '확대사업'이 진행되어 2015년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 시기에 한일 양국이 합의한 영주귀국 대상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할린에 이주 및 거주했거나 태어난 사람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이른바 한인 1세라 지칭되는 이들만 영주귀국 대상이 되기에 자녀 및 손자손녀와 헤어질 수밖에 없다. 2인 1가구 원칙도 사할린 한인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특별법'에 대한 요구가 거세진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영주귀국하여 꿈에 그리던 고향에 왔지만, 막상 그들 앞에 닥친 현실은 외롭고 쓸쓸하기 짝이 없다. 다 늙은 부부가 아파트에서 각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의 전부다. 방학 때나 되어야 부모를 방문한 2세와 손자손녀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릴 뿐, 평소 안산 고향마을은 노인들만의 섬으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사할린 현지에서는 영주귀국 사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고, 가족과 떨어지느니 차라리 사할린에 남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2인 1가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급하게 결혼을 했거나 동성끼리 합가한 이들 또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도 버겁지만, 문제가 생겨도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나 기관이 주변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영주귀국과 관련한 사할린 한인들의 태도는 점차 세 부류로 나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영주귀국을 하겠다는 사람,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면 영주귀국을 선택하겠다는 사람, 그리고 사할린에 남기를 희망하는 사람.

특별법 제정의 걸림돌, 내부에 있어

해방 60주년이 되는 2005년, 마침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특별법이 발의된다. 한명숙, 장경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영주귀국 대상 확대 ▲사할린 잔류 희망자에 대한 지원 ▲사할린 동포 관련 업무를 관장할 기구(사할린동포 지원위원회) 설립 ▲일제에 의해 강제로 적립하고 받지 못한 저금과 미수금 상환에 대해 국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 등으로, 이후 18대와 19대에 걸쳐 계속해서 발의된 「사할린동포 지원 관련 특별법」 또한 이 네 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17대부터 19대에 이르기까지 특별법이 거론되면서, 정부와 국회는 사할린 한인이 직면한 문제가 단지 개인의 잘못이나 운명 탓에 발생한 게 아니라, 정부가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이제라도 당연히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법 제정 앞에서는 예외 없이 정부 부처와 국회 간에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관련 업무 부처들이 "신중해야 한다"면서 발을 빼는 게 그 이유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점에서 법 제정에 신중해야 하는 것인가?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19대 국회에 발의된 전해철 의원의 법안에 대해 "사할린 동포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타 지역 동포와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평성을 이유로 사할린 한인이 처한 특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재외동포들이 겪는 문제를 그때그때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사라지게 된다. 아니, 무엇보다 지금은 사할린 한인의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 자체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이기도 하다. 이처럼 분초를 다투어야 할 사안을 앞에 놓고 무려 8년씩이나 끌고 있으니, 정부는 이에 대해 뭐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

또한 이미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2010)이 제정된 사례가 있기에,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 소련의 붕괴 이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차별받고 국적 취득이 어려워진 고려인 동포를 지원하는 이 법률안은, 그 대상을 '농업이민, 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와 그 친족으로 현재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하고 있다. 단순히 대상만 놓고 보면, 오히려 사할린 한인이 고려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정의화 의원은 위 법안의 대상에 사할린 동포도 포함시키라는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올렸다. 사할린 동포에게도 현지에서 의료 지원, 한글교육 등 문화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사할린 한인과 관련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등을 통해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лонка историка

ИСТОРИЯ КОРЕИ

Ежедневно ван проводил совещания с высшими сановниками государства, а также регулярно давал большие дворцовые аудиенции столичным чиновникам. Все деловые встречи и беседы вана тщательно протоколировались секретарями, а после смерти на основе этих протоколов составлялся силлок – подробная подневная хроника правления монарха. Сведенные вместе «Лиджо силлок» (Правдивые записи) всех ванов – один из самых выдающихся памятников мировой историографии.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ван был верховным правителем, власть его по конфуцианским канонам ограничивалась разветвленным бюрократическим аппаратом. Чиновники зачастую успешно противостояли воле монарха.

Высшим орган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равления в Корее был Ыйджонбу – своего род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 Во главе его стоял чиновник I ранга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и его два заместителя – «левый» и «правый». Даже когда роль Ыйджонбу снизилась,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и его заместители по прежнему оставались самыми высшими сановниками страны.

Органами отраслевого управления являлись подобия европейских министерств (их еще называют ведомствами или палатами). По традиции их было шесть –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чиновников, налогов, церемоний, военное, наказаний, общественных работ. Помимо Ыйджонбу и министерств также были Три ведомства, два из которых были контроль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Саганвон и Сахонбу (критики ошибочных действий вана и чиновников) и Хонмунгван, отвечавший за хранение официальных документов и материалов для историографов.

Все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аппарата ван руководил через свою личную канцелярию Сынджонвон и специальное полицейское ведомство Ыйгымбу. Оба эти ведомства подчинялись лично вану.

Столичное чиновничество было очень немногочисленными – всего около 500–600 кадровых должностей. Это при том, что всего население Чосона состояло около 11 млн человек. Главная задача ванов была решена – бюрократия была немногочисленной, но эффективной и вполне справлялась со своими обязанностями.

Рациональностью отличалась и структура управления на местах. Страна была поделена на 8 провинций (сохранившихся до сих пор), во главе которых стоял губернатор, управлявший немногочисленным аппаратом.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слияния местной элиты и губернаторского аппарата (что вело к коррупции и сепаратизму) местные чиновники постоянно ранжировались. Обычный период пребывания губернатора на посту составлял 1 или 2 года. По истечению этого срока, он переводился в другую провинцию.

Провинции делились на более мелкие уезды, начальники которых также заменялись каждые 3– 6 года. Кроме того, деятельность мест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онтролировали ревизоры тайные и явные, которые оперативно докладывали вану о фактах злоупотребления властью и коррупци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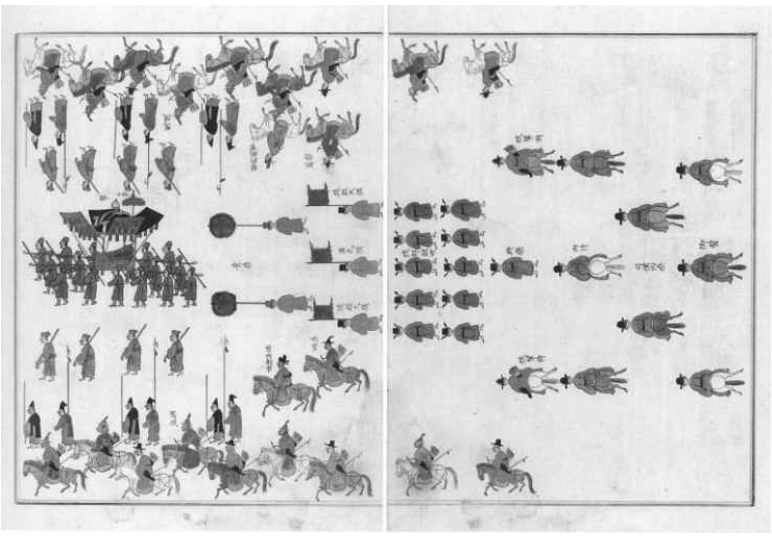


Рисунок 1. Церемониальный выезд вана Чосона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Юлия Дин,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ИАСО

«ЭТОТ КОНЦЕРТ ДЛЯ ВАС!»

Мое знакомство с сахалинским исполнителем Сергеем Хе весьма впечатлило еще с первых приветственных слов, которые он адресовал всему прекрасному полу в зале: «Концерт посвящен вам!», а в качестве подарка был предложен «букет цветов различных эпох и времен».

Тема любви и весны сопровождала аудиторию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й программы «Души изменчивой приметы», которая состоялась 10 март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Взятое из строчек стихотворения Николая Заболоцкого «Портрет» название музыкального вечера говорило о том, что предстояла не просто встреча с музыкантом, а художником, который звуками струн, подобно кистям, создает перед слушателями не только образы знаменитых возлюбленных поэтов разных эпох, но и пейзажные портреты весны и природного пробуждения, переплетающихся с нотами любви.

И первым произведением Сергея Хе стал романс на стихотворение Пушкина «Признание», посвященное Александре Осиповой, которая по легенде так и не узнала о чувстве поэта. Но слушатели могли через плавные звуки гитары погрузиться в забытые времена, представить «легкий шаг, иль платья шум» молодой женщины.

Далее сахалинский исполнитель переместил гостей музея в эпоху портрета XVIII века. Так, например, Федор Рокотов, создавший портрет Александры Струйской с загадочными черными глазами, спустя двести лет вдохновил Николая Заболоцкого на стихотворный «Портрет». Вниманию зрителей на музыкальном вечере был представлен лирический портрет Марии Лопухиной, восхитившей однажды Якова Полонского: «Она давно прошла, и нет уже тех глаз…» Вместе с мелодией Сергея Хе ощущалось восхищение героя стихотворения девушкой, чей облик он увидел на картине Владимира Боровиковского. Проходит одно столетие, а за ним наступает другое… Но образ Лопухиной живет в строках стихотворения и восхищает своей небесной красотой в звуках гитары Сергея Хе.

Резкий контраст и исполнитель переносит слушателей в Шотландию, к Роберту Бёрнсу, потом – обратно в Россию: к Валерию Брюсову в Серебряный век, к Сергею Есенину... Но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хочется уделить поэту, артисту, киноактеру, почти забытому современным поколением – Александру Вертинскому и его произведению «У моих дочурок много есть игрушек». Это стихотворение было посвящено двум дочерям Вертинского – Марианне и Анастасии. И если до этого звукам музыки Сергея Хе внимала взрослая часть гостей музея, то в момент исполнения стихотворения о детях школьники оживились, а зал наполнился доброжелательным и искренним смехом. Подобными эмоциями зрители были охвачены и во время исполнения музыкальной истории Даниила Хармса «Веселые чижи». Посвященные 6-ому Ленинградскому детскому дому стихи под звуки гитары передавали атмосферу радостной и оживленной работы.

Завершился вечер стихами Афанасия Фета, певца любви и весны «Я тебе ничего не скажу». В этом лирическом признании рассказывается о чувствах русского поэта к двум возлюбленным, волею судьбы носившим одно имя – имя Мария. Во время исполнения стихотворения Фета зал наполнился шумом аплодисментов.

На концерт Сергея Хе я попала случайно. Но теперь я убеждена, что такой концерт должен привлекать не только взрослых людей (а их количество в зале было подавляющим), но и молодежь. Молодеж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ергей Хе позвал за собой слушателей в путешествие по неизвестным уголкам истории литера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дал возможность узнать много нового, стать ближе к русской и мировой культуре, послушать музыку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 исполнении.

Невольно хочется обратиться с вопросом: «Нужно ли чаще проводить такие организованные концерты, но только на более масштабном уровне? Или, может быть, просто стоит немного поменять свои взгляды и стать ближе к духовному, настоящему, жизненному и насладиться музыкой именно в камерном зале?» Нужно подумать...

ДАРЬЯ СОРОКИНА,
ученица средней школы № 9
с углубленным изучением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и культуры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Этнос» представит Сахалин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онкурсе

Ансамбль корейского танца «Кеннари» школы искусств «Этнос» представит Сахалин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онкурсе «Будущее планеты».

Поездк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состоится благодаря помощ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фонда «Родные острова»,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танцоры поборются за победу в номинации «Хореограф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курса детского и юнош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Кеннари» представят два танца: шаманский народно-сценический танец с веерами «ченганчум» и пляски с медными тарелками «парачум».

- В каждом номере танцовщицы выступают в аутентичных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стюмах и с атрибутикой. Мы выбрали эталонные танцы 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остановке. Они сложны с техническ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но это позволит показать наше мастерство, – отмет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ансамбля Евгения Ким.

По мнению начальника отдела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й работы «Этноса» Игоря Ворохова, помощь оказывают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и родители, и команда благотворителей.

- В 2017 году к этой команде помощников присоединился и региональный фонд «Родные острова». Его финансовая поддержка позволит показать в северной столице творчество практически единственной в России школы, в которой есть отдел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 добавил он.

Неожиданное приглашение на конкурс пришло только 30 января.

- Для талантливых ребят такие конкурсы и фестивали - это не просто общение. Это школа и точка роста.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показать себя, понять сво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уровень и заявить 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езусловно, такие поездки сопряжены с серьезными финансовыми расходами. Мы понимаем значение таких поездок и оказываем помощь талантливым островитянам, - подчеркнул президент фонда «Родные острова» Александр Кан.

Добавим, что развитие талантов одаренных детей и поддержка островной молодежи – одно из ключевых направлений деятельности фонд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нкурс детского и юнош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Будущее планеты» пройдет с 27 марта по 1 апреля и соберёт самых талантливых исполнителей и коллективы из нашей страны и зарубежья. В составе жюри – кандидаты и доктора наук,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й консерватории и солисты балета Мариинского театр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Американский авианосец Carl Vinson зашёл в порт Пусан

Американский атомный авианосец Carl Vinson зашёл в среду в порт Пусан в Восточном море для участия в совместных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манёврах Foal Eagle.

Как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мериканских ВМС, авианосец проведёт совместные учения с южнокорейскими военно-морскими силами в прибрежных водах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рамках манёвров Foal Eagle, которые продлятся до конца апреля.

Выступая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в Пусане, контр-адмирал Джеймс Килби, командующий ударной группой номер один, которую возглавляет авианосец, сказал, что регион даёт хороши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совместных учений,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укрепить военный альянс с Сеулом.

В ударную группу, состоящую из 6,5 тысяч военных моряков, кроме авианосца Carl Vinson, входят два эсминца с управляемым ракетным оружием, ракетный крейсер и крыло палубной авиации, включающее 74 самолёта. В ходе маневров отрабатывается совместное ведение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в том числе, по борьбе с подводными лодками противника, проводятся стрельбы из корабельной артиллерии по наземным целям.

Экс-президент РК Пак Кын Хе вызвана на допрос в прокуратуру 21 марта

Экс-президенту РК Пак Кын Хе направлена официальная повестк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оторой она должна явиться на допрос в прокуратуру Центральног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округа Сеула 21 марта в 9:30 утра. Адвокат экс-президента Сон Бом Гю подтвердил факт получения повестки и обещал вместе со своей подзащитной содействовать следствию.

Пак Кын Хе подозревают в совершении уголовных преступлений, выразившихся в превышении полномочий и причастности к коррупции. Если Пак Кын Хе проигнорирует вызов, она может быть подвергнута принудительному приводу на допрос, поскольку с утверждением импичмента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м судом она лишена иммунитета от уголовного преследования.

Пак Кын Хе станет четвёртым по счёту бывшим президентом РК, ставшим объектом уголовного преследования вслед за Ро Дэ У, Чон Ду Хваном и Но Му Хёном.

Хван Гё Ан не буде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9 мая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Хван Гё Ан официально объявил об отказе от участия в досрочных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Выступая в среду на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он заявил о своём намерении сосредоточиться на управл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ом до избрания нового лидера, а также подготовке к проведению честных выборов.

На заседании было также подтверждено, что выборы состоятся 9 мая, и день их проведения объявлен общенациональным выходным.

До сих пор Хван Гё Ан считался главным претендентом на выдвижение в качестве кандидата от консервативных сил.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олгого времени он занимал второе место в списке потенциальных кандидатов в президенты, уступая лишь бывшему лидеру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Мун Чжэ Ину.

15 марта в Китае вступил в силу запрет на поездки туристов в РК

15 марта китайски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агентства прекратили продажу путёвок в РК как в своих офисах, так и в интернете. Во исполнение решения Китай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инятого 2 марта, введён запрет на групповые туры, остановки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ортах в рамках морских круизов и продаж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туров.

Между тем, желающие организовать поездку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могут это сделать беспрепятственно, купив авиабилет, забронировав размещение и получив визу. Данные меры являются реакцией Пекина на размещение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американ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ПРО THAAD, радары которых, по утверждению китайской стороны, позволят наблюдать за территорией соседних стран.

В начале марта власти Китая распорядились временно закрыть более половины магазино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и Lotte, сославшись на требования пожа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Китайские авиакомпании сократили численность рейсов в южнокорейские аэропорты, и авиакомпании РК были вынуждены сделать то же самое из-за сокращения пассажиропотока.

(RKI)

В Пхенчхане полностью проверили объекты к Олимпиаде-2018

Олег Кирьянов (Пхенчхан, Каннын)

"Насколько мы готовы? Если говорить образно, то представьте, что у вас запланирован дома торжественный ужин, куда вы пригласили много гостей. Вы уже приготовили все блюда, которые стоят на плите, накрыли скатерть на стол, расставили закуски, напитки и почти везде разложили приборы. Осталось только на пару мест принести вилки-ложки и положить салфетки. А так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готово. Вот примерно настолько мы готовы", - так приветлив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Оргкомитета ОИ в Пхенчхане по фамилии Ким ответил на вопрос о готовности к Олимпиаде, которая пройдет с 9 по 25 февраля 2018 года.

Впрочем, кореец, который явно привык мыслить не столько абстрактными образами, а языком сухих цифр, "которые не врут", тут же дал пояснение уже не для "лириков", а "физиков": "Если брать общую готовность абсолютно всего и выводить средний показатель, то на середину января он составлял 96, 3 процента, сейчас же это уже 98 или даже 99 процентов. Если же брать только спортивные объекты, то они полностью готовы - 100 процентов, осталось доделать лишь несколько объектов вспомогате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 пояснил он.

12 арен и два кластера

Олимпийские объекты Пхенчхана разбиты на два основных "кластера" - "горный", который расположен собственно в Пхенчхане, а часть еще и в прилежащем районе Чонсон, и "приморский" - в городе Каннын, что на побережье Восточного (Японского) моря. Оба кластера находятся недалеко друга от друга - порядка 30 км. В первой группе объектов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снежные" виды спорта - лыжи, биатлон, прыжки с трамплина, сноуборд, а также санно-бобслейные дисциплины. А в Канныне - "ледовые": хоккей, фигурное катание, керлинг, шорт-трек и бег на коньках.

Дорога Пхенчхана к Олимпиаде была весьма драматической. Получил он право на проведение состязаний лишь с третьего раза, проиграв в напряженной борьбе сначала Ванкуверу, а затем Сочи. Причем два первых раза все считали именно Пхенчхан фаворитом. Но нет худа без добра. Часть объектов были уже давно готовы, так как планировали проводить Олимпиаду еще раньше - аж в 2010 году.

Среди 12 арен и крупных комплексов заново пришлось строить шесть, тогда как остальные было достаточно обновить и немного перестроить. Среди тех, что уже были давно готовы - трамплин для прыжков (он стал чуть ли не главным символом Пхенчхана, так как расположен эффектно на вершине одной из гор и виден издалека), биатлонный и лыжный стадионы, а также часть трасс для горных лыж и сноуборда.

Что касается совершенно новых объектов, то с нуля строили все ледовые объекты - две арены для хоккея, центр для бега на коньках, для фигурного катания и шорт-трека, а также санно-бобслейную трассу. Одновременно стали возводить специальный центральный стадион, где пройдут церемонии закрытия и открытия, а также прочие объекты - спортивную деревню, медиа-центр.

Впрочем,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новых спортивных комплексов уже завершено, на них прошли тестовые состязания. Это были, как правило, этапы Кубков мира по разным видам спорта либо и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Судя по комментариям местных чиновников, кое-где пришлось спешить, чтобы успеть к датам состязаний, но так или иначе успели.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и ранее возведенные объекты пришлось переделывать, а иногда и серьезно. В частности, мы сами были свидетелями, как поменялась биатлонная трасса и центр. Еще осенью прошлого года весь стадион и подходы к нему были основательно перекопаны, буквально по стрельбищу ездили бульдозеры. Но 2-5 марта здесь прошел уже этап Кубка мира по биатлону, и прошел с точки зрения организации успешно. Отвечая на вопрос, зачем понадобилось пригонять мощную технику на готовый объект и разворачивать работы,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яснили: "По поводу биатлонной трассы были жалобы, что один из спусков слишком крутой. Кроме того, мы хотели сделать более удобные подходы к стрельбищу, а также установили новые мощные прожекторные комплексы".

Ни для кого секретом не было, что самую большую проблему в плане как строительства, так и последующе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санно-бобслейный комплекс. Объект с техническ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весьма сложный, дорогостоящий, а те виды спорта, для которых он существует, не могут похвастаться массовостью и большой доступностью. Пару лет назад возникло предложение: а может отдать состязания по этим видам японцам, у которых в Нагано с Олимпиады-1998 ес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Но тут уже взыграла корейская гордость: "Все проведем только у нас! Мы получили право на Олимпиаду, мы его полностью и реализуем!" Не так просто, с некоторыми заминками, но санно-бобслейный комплекс в районе Альпенсия уже готов и принял ряд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стязаний, доказав свою полную готовность.

Недостроенные и неготовые еще к использованию объекты все же есть, но они не из тех, над которыми "висело" условие быть протестированными за год до Олимпиады.

"Нам осталось достроить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е объекты. В частности главный стадион, где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церемонии закрытия и открытия Игр, медиа-центр, а также саму олимпийскую деревню. Их готовность мы оцениваем от 50 до 70 процентов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а сдадим все в период с апреля по сентябрь этого года. Но это не спортивные объекты, их так тестировать не надо, так что время у нас есть, мы полностью успеваем", - заверил Ким из Оргкомитета игр. Насколько можно судить невооруженным взглядом со стороны, на этих объектах сейчас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стоянно идет стройка. Ситуация визуально меняется каждую неделю, а потому стоит поверить организаторам на слово.

Работающий в Оргкомитете ОИ-2018 единственный россиянин Николай Белокринкин,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которого корейцы не только полностью построили, но и уже "обкатали" на тестовых состязаниях в виде этапов Кубка мира олимпийскую горнолыжную трассу в Чонсоне, заверил, что беспокоиться не стоит - все будет готово в срок и даже раньше. "Конечно, когда готовится мероприятие такого масштаба как Олимпиада, то накладки неизбежны, вопрос в том, насколько вы готовы решать неожиданные проблемы. Корейцы проводили олимпиаду 30 лет назад - в Сеуле, в 1988 году. Я вижу по их настрою, что они очень хотят не ударить в грязь лицом и на этот раз", - сказал он.

Как видится, не возникнет проблем и с доставкой участников Олимпиады в Пхенчхан и город Каннын, где находятся две основные группы объектов. Помимо уже существующей скоростной автомагистрали, связывающей Сеул с местом проведения, недалеко от Каннына в городе Янъяне есть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который может взять на себя часть рейсов. Кроме того, уже в текущем году будет завершен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ветки высокоскоростн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Сеул-Каннын. "Это позволит добраться до нас из Сеула менее чем за два часа и с большим комфортом. Мы укладываемся и даже опережаем план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Так что здесь все в порядке", - заверил 4 марта журналистов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 Чхве Мун Сун.

Объекты глазами спортсменов

Корреспонденту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ы" довелось лично наблюдать за тем, как проводились на объектах Пхенчхана и Канны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остязания по шорт-треку, бегу на коньках, керлингу, лыжным гонкам, биатлону и прыжкам с трамплина. Шероховатости в мелочах неизбежны, и они в процессе организации мероприятий временами были, хотя и незначительные, сами же объекты функционировали без проблем. Общую организацию можно охарактеризовать в диапазоне от "хорошо" до "отлично". Небольшие накладки при такого рода круп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бывают всегда и у всех. Корейцы же успевали решать все возникавшие проблемы так, что это не сказывалось на самих состязаниях и на спортсменах.

Впрочем, впечатления журналиста, который лично не бежит по лыжне и не прыгает с трамплина - это одно, а мнен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пользователей" этих объектов, то есть самих спортсменов - это другое. А потому мы спросили и их мнения.

Насколько можно судить, адаптация россиян к олимпийским трассам Пхенчхана прошла успешно, а сами объекты в целом понравились. Об этом, в частности, рассказал биатлонист Антон Бабиков.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Олег Кожемяко поздравил Сергея Гусева с победой на выборах главы Охин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благодарил жителей самого северного района острова за высокую активность, проявленную в период выборной компании.

Напомним, в минувшее воскресенье состоялись досрочные выборы главы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Охинский». Явка на них составила 36,25 процента.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м данным, полученным с 18 избират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наибольшее число голосов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3811 или 50,71 процента) было отдано за Сергея Гусева. Достаточно высокую поддержку избирателей получил и еще один кандидат на пост мэра Денис Кан, предпочтение которому отдали 2741 житель района (36,47 процентов голосов). Другие кандидаты Ольга Тараканова, Маргарита Филиппова и Инна Тишковец набрал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286, 269 и 104 голосов (3,81, 3,58 и 1,38 процента).

-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всех жителей района, которые пришли на избирательные участки, проявив активную гражданскую позицию. Выборы главы Охин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прошли в условиях открытой конкурентной борьбы при высокой явке. Именно так и надо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выборные процессы, позволяющие определить лучших кандидатов на пост руководителей, - отметил Олег Кожемяко.

Губернатор поздравил с победой на выборах нового мэра Охинского района и пожелал ему успешной работы на благо жителей округа, продолжения начатых прежней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проектов в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е, строительстве жилья, ЖКХ,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е города и сельск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 В своей работе региональ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риентируется на мнение граждан, так будет и впредь. Поддержку получат все проекты и начинан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развитие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артий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их руководителей. Главное, чтобы люди, живущие там, не были заложниками политиков. Убежден, для главы района важнее политических взглядов умение оперативно и эффективно решать накопившие проблемы, видеть стратегию развития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Безусловно, самый северный на Сахалине Охинский район требует к себе особого внимания. Област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овместно с избранным мэром будет разработан план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округа. Все начатые проекты получат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работа и по решению проблем, которые озвучили на встречах жители Охи и сельск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 подчеркнул губернатор.

Глава области также поблагодарил охинских избирателей, поддержавших на выборах еще одного кандидата - Дениса Кана. Замест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ра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в условиях острой борьбы и непростой 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сложившейся в районе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сумел добиться достаточно серьезной поддержки у населения, погрузившись в решение многих проблем. И, безусловно, в дальнейшем на посту замминистра Кан должен продолжить эту работу по Охе,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 совместно с законно избранным мэром сделать все то, о чем он говорил избирателя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ормируется Реестр общин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Данная работа позволит сделать мер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коренных северян более прозрачными и адресными, повысив их эффективность. Об этом накануне сообщил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ладимир Поломарчук.

Он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круглом столе», организованном Комитет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по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и проблемам Севера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а затем - в заседании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где обсуждались вопросы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в сфер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Одним из основных в ходе обсуждения стал вопрос, касающийся доработки проекта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е лиц, относящихся к коренным малочисленным народам Север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Ф, ведущих кочевой образ жизни». Участники заседания пришли к общему выводу о том, что в изменяющихся экономических условиях назрел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еформирования и адаптации механизмов помощи коренным народа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и задачи решает образованный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овет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при губернаторе. Сегодня на основе его рекомендаций разрабатываются мер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бщин коренных северян,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данным объединениям развиваться, а для 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будут созданы рабочие места.

- Важную роль в этом смысле играет проводимая в области работа по приданию общинам статуса сельхоз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что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развитию оленеводства. Хозяйства смогут получать различные виды помощи по линии аграрной отрасли - льготные кредиты, субсидии и дотации, а также участвовать в лизинговых программах. Сейчас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должается разработк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б оленеводстве», - рассказал Владимир Поломарчук. – В числе других мер поддержки - строительство факторий первичной и глубокой переработки продукции традиционной 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ренных северян, оснащение современн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и оборудованием производств общин, поддержка развития аборигенного туризм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повышения адресности помощи общинам в регионе приступили к формированию их Реестра. Однако при проведении данной работы, отмет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озник ряд сложностей,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которых находится в компетенции федераль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нормами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учредителями общин могут выступать только лица из числа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В то же время сегодня не существует порядка опреде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того или иного гражданина, так как в современных паспортах нет указания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 Полагаться на справки, выдаваемые муниципальными образованиям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ли общинами не совсем правильно. Так как порядок определен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 федеральные полномочия. В этой связи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целесообразным поддержать рекомендацию V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орума «Арктика: настоящее и будущее» -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пункт 5 Положения о паспорте граждани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ечь идет о том, чтобы у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органов Федеральной 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появились полномочия по проставлению на последней странице бланка паспорта отметки о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гражданина, относящегося к коренному малочисленному народу РФ, по его письменному заявлению на основании информации о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родителей (или одного из них), указанной в свидетельстве о рождении, - сказал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и формировании Реестра, по его словам, потребуется также уточнить и Перечень мест традицион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и традиционной 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на Сахалине.

К примеру,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в нем оказалось только село Буюклы, в то время как коренные северяне проживают и в друг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данн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ие власти предлагают актуализировать Перечень, включив в него полностью территорию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обращение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о 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Кроме того, предложено законодательно закрепить положение о том, чтобы включать в Перечень мест традицион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и традиционной 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территории не менее, чем в граница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Обозначил в своем докладе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положительный опы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с промышленными компаниями, ведущими добычу углеводородов на шельфе Сахалина.

Власти региона сейчас работают над новыми механизмами,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обеспечить большую вовлеченность как уже работающих на острове нефтегазовых компаний, так и вновь приходящих недропользователей в реализации мероприятий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Ключи от квартир получили жители первых арендных домов в Тымовском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на улице Деповской собрала много людей. Событие для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далеко не рядовое: сразу 72 семьи тымовчан, в основном бюджетники - работники образова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культуры,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переехать в новые благоустроенные квартир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так называемого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Это многоквартирные дома,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е для сдачи в коммерческий наем. Рассчитаны они, прежде всего, на приезжающих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медиков, уз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работников бюджетной сферы. Стоимость проживания в арендном доме на 50 процентов ниже среднерыночной. В 2016 году введены восемь таких объектов в Поронайске, Холмске, Анив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евельске и Смирных, всего 250 квартир. В текущем году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начнется и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В поселке Тымовском три 24-квартирных арендных дома расположили одним блоком. Здания объединены общим двором, в котором уже оборудована яркая детская игровая площадка.

Финансировало стройку Сахалинское ипотечное агентство. На возведение домов потребовалось всего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Первые строители появились на улице Деповской в ию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И вот дома готовы принять жильцов.

Строители постарались. Как рас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одря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Никита Вернер,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компании «Рыбоводстрой», здания возведены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энергосберегающих технологий. Это позволит жильцам экономить до 30 процентов на оплате теплоснабжения. Дома монолитные, они способны выдержать землетрясение силой в восемь баллов. Для отделки наружных стен использованы японские фасадные материалы.

Ключи новоселы получили из рук губернатора Олега Кожемяко. И сразу же отправились осматривать квартиры. Четырехлетняя Алиса Спиридонова охотно показала главе области свою будущую комнату. Рассказала, где надо поставить диванчик, в каком углу она разместит своих кукол. Сообщила, что на стену непременно повесит нарисованный собственными руками портрет любимой кошки Симы. Мама Алисы, библиотекарь Татьяна Спиридонова, просторной светлой и теплой двухкомнатной квартирой очень довольна. Прежде молодой семье приходилось жить вместе с родителями. Но теперь Татьяна и ее муж смогут вести хозяйство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а также подумать о прибавлении семейства. Тем более, что новый дом для этого хорошо приспособлен. В частности, на окнах и балконных дверях установлены замки. Чтобы открыть их, придется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ключом. Это своеобразная страховка от нес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в которых могут пострадать малыши.

- Наличие комфортного жилья позволяет людям создавать семьи, рожать детей, и, что очень важно, связывать свое будущее с нашей островной землей,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Олег Кожемяко. – Поэтому я уверен, чт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сыграет важную роль в улучшении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Тымовском районе 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целом

Туристы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и Хабаровска активно приобретают пакеты услуг для катания на склонах горы Большевик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Горный воздух»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бирает популярность. Этому способствовала, в частности, акция «Горнолыжный Сахалин», которая предоставляет поклонникам горных лыж и сноуборда возможность купить авиабилеты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и Хабаровска дешевле действующего минимального тарифа. Для э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приобрести пакет услуг, который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кроме проездных документов, ски-пасс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акции выступили авиакомпании «Аэрофлот» и «Аврора», «Приморское агентство авиационных компаний» (всероссийская сеть «Билетур»)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гентства по туризм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 По сведениям, которые нам предоставила компания «Билетур», только за два дня с момента старта было продано более 20 пакетов услуг, - рассказала Наталья Осипова,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туризм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Большую часть приобрели жители Владивостока, остальное – хабаровчане.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пребыва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разная – от двух до 15 дней. Минимальная цена двухдневного пакета с вылетом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составляет 12000 рублей, с вылетом из Хабаровска - 11000 рублей. В результате экономия туристов на авиабилетах составляет несколько тысяч рублей.

Напомним, нынешний сезон «Горный воздух» отмечает чередой открытий и нововведений. Запущено освещение юго-западного склона горы Большевик. Здесь расположены трассы для новичков. Благодаря добавлению 17 кабинок выросла пропускная способность основной канатной дороги комплекса. В дополнение к уже действующим трем «канаткам»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ввели еще две - на северном и южном склонах. Запущен сайт с системой онлайн-бронирования ски-пассов, гостиниц, туров. Купить или пополнить ски-пасс теперь можно в десяти гостиниц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 гору Большевик туристов будут доставлять бесплатные шаттлы.

Льготные пакеты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в кассах «Билетур» и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Артеме, Арсеньеве, Большом Камне, Находке, Уссурийске, Славянке, Хабаровске.

- Акция «Горнолыжный Сахалин» только началась, - сказала Наталья Осипова. – А до конца сезона остается еще несколько недель. Уверена, мы увидим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гостей из соседних регион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즐거운 통일 | 통일 레시피

남새는 '채소'를 뜻하는 북한말로,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남새에는 비타민이 풍부하니, 소가 남새를 먹고 힘을 쓰듯이 남새밥을 먹고 소처럼 일하자'며 남새밥이 적극 권장됐었다. 북한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대용식으로 쓰이던 요리지만, 육류 위주의 식단과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진 남한 사람들에게 '남새밥'은 훌륭한 영양식이 될 수 있다. 풍부한 영양소가 듬뿍 담겨있고,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수 있어 다이어트에도 좋은 남새밥을 만들어보자.

요리재료

쌀 2컵, 물 2컵, 밤 5알, 당근 1/3개, 표고버섯 4개, 대추 5개, 단호박 50g, 옥수수 30g, 완두콩 30g

요리방법

1 쌀과 완두콩은 씻어서 미리 불려놓는다.

2 밤은 껍데기를 깐 뒤 먹기 좋게 잘라준다.

3 당근, 표고버섯은 흐르는 물에 씻은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4 씨를 제거한 단호박을 사각 썰기로 잘라준다.

5 옥수수는 잘 씻은 뒤 알을 떼어 내 쌀과 섞어 준비한다.

6 밥솥에 불린 쌀을 먼저 담고, 준비한 채소와 대추를 올린 뒤 밥을 지으면 완성.

콩비지와 무채 배추로 만드는 북한식 남새밥

식량난이 심각하던 시기, 북한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용식품 개발과 보급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절식 건강법'에 대한 순회공연을 벌이면서 식용이 가능한 '풀뿌리 채취운동'을 전개했고, 부식물을 이용해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영화를 만들어 이를 각 공장, 기업소, 단체별로 상영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쌀의 소비를 억제하면서 식량 부족을 타개하고자 대대적으로 보급했던 것이 바로 남새밥과 김치밥이다.
북한식 남새밥은 옥수수, 밀 등 잡곡에 콩비지, 무채, 배추 등의 채소를 적당한 비율로 섞어 짓는다.

<글 · 사진 / 요리연구가 박민
(웹진 <e-행복한통일>, 제40호>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к 19

이제는 한국 뉴스를 인터넷으로 접한다

(전호의 계속)

대화

선생님: 요즈음은 IT산업이 발달해서 굳이 한국 신문과 한국 방송을 직접 보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이제 한국의 거의 모든 책, 잡지, 신문, 자료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올가: 네, 선생님. 말슴하신 대로 저희는 한국 신문과 방송을 자주 접할 수는 없지만, 요즈음 인터넷이 잘 보급되어 한국사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채팅을 통해서 한국 친구도 사귈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 지 모릅니다.

선생님: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한국에서 화젯거리가 되고 있는 뉴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마: 아마도 경제에 관한 얘기가 화젯거리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 문제로 한국에서도 영향이 있나 봐요.

리자: 독도 문제도 다시 화젯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땅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역시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하랴 아르바이트도 하랴 잘 잘 시간도 부족할 텐데 한국 뉴스를 읽으면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니 대단하네요. 일본 역사교과서와 국방부에서 한국 섬인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명기하여 시위도 벌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독도 문제의 진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나온 단어

발달-развитие; 방송-передача; 접하다-получить доступ; 화제-тема (предмет) разговора; 수입-импорт; 시위-демонстрация; 인권-права человека; 아르바이트-подработка; 향상-улучшение, повышение; 국방부-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명기-обозначение.

Грамматика 문법

Смысловые отношения: синонимы, антонимы.

단어간의 의미관계: 유의관계, 반의관계

Синонимы (유의어)

- слова одной части речи, различные по звучанию и написанию, но имеющие одинаковое или очень близкое лекс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Синонимы служат для повышения выразительности речи, их использование позволяет избегать однообразия речи. Каждый синоним имеет свой особый оттенок, значения, отличающий его от других синонимов.

Синонимы, указывая на одно и то же понятие и имея одинаковое лекс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различаются своей экспрессивной окрашенностью, закрепленностью за определенным стилем, степенью употребительности.

Многие синонимы отличаются друг от друга одновременно лексическим значением и экспрессивной окрашенностью.

Далее приводятся синонимические ряды некоторых корейских слов.

가끔: 더러 - 이따금 - 드문드문 - 때로 - 간혹 - 혹간 - 간간이 - 왕왕 - 종종- 자주 - 수시로- 빈번히

바보: 멍텅구리 - 멍청이 - 맹추 - 맹꽁이 - 머저리 - 얼간이 - 밥통 - 등신 - 천치 - 숙맥

가난하다: 빈곤하다 - 빈궁하다 - 어렵다 - 곤궁하다 - 궁핍하다

비슷하다: 비스름하다 - 비슷비슷하다 - 버젓하다 - 거의 같다 - 그만그만하다 - 고만고만하다 - 엇비슷하다 - 맞먹다 - 가깝다 - 어슷비슷하다 - 비방하다 - 유사하다 - 상당하다 - 흡사하다 - 완연하다 - 방불하다 - 오십보백보이다 - 오십보소백보이다.

Антонимы (반의어)

Антонимы - это слова одной части речи, различные по звучанию, имеющие прямо противоположные значения:

남자 - 여자, 선하다 - 악하다, 말하다-침묵하다, 오다 - 가다

Практиче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1) -(으)ㄹ망정 "не смотря...", "хотя..., но..."

Указывает на противопоставление определенному факту, другого более положительного факта.

Примеры:

그 사람은 키가 작을망정 힘은 아주 세다.

→ Хотя он и маленького роста, но очень сильный.

우리는 죽을망정 적에게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 Умрем, но не сдадимся.

그는 머리는 나쁠망정 게으르지는 않다.

→ Хотя он и очень умный, но зато неленивый.

(계속)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이모저모

(2면의 계속)

상대측 촬영팀은 이미 올 여름 사할린에 와서 촬영하기로 하고 방송은 9월 새 방송시즌에 맞추어 방영하기로 협정했다.

그외 사할린주관광부는 대규모 <TUI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여행사와 전략적 협정을 체결했다. <여행과 관광>국제박람회는 독립국가연합 사이에서는 대규모 전문포럼으로서 올해 이곳에는 2000여 명 이상이 모였다고 사할린주 관광국 사이트는 전했다.

«Моя планета» снимет фильм о Сахалине

Делегац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е «Путешествия и туризм» договорилась с исполнительным продюсером телеканала «Моя планета» Олегом Тереховым о съемке программы на Сахалине для нового проекта НТВ.

Программа будет рассказывать о туристических возможностя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причем основное внимание авторы планируют уделить приключенческому и семейному видам отдыха. Стороны договорились, что съемочная группа прибудет на Сахалин уже летом, сама же программа выйдет в эфир в новом телевизионном сезоне в сентябре.

Кроме того, агентство по туризм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ключил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соглашение 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с туроператором «TUI Россия и СНГ».

Международная выставка «Путешествия и туризм» MITT – крупнейши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форум на пространстве СНГ. В этом году она объединила более двух тысяч участников, сообщается на сайте агентства по туризм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주 연극단들 <카페드라마>축제에 참여

사할린주 민속극장축제 <카페드라마>가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축제 주최는 사할린주문화문서보관부, 주관은 지역 민속창작센터이다.

축제에는 창설한 지 2년이상 되고 풍부한 작품 공연의 경험이 있는 주내 연극단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로지나>시문화회관 무대에서 관객들은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노글리키, 오하, 홈스크, 포로나이스크, 아니와와 유즈노사할린스크 민속 극장들의 연극을 볼 수 있게 된다. 연극들 상연은 3일간 일정한 시간에 진행할 예정이다.

연극 상연은 상트페테르부르그에서 초대된<피지(PG) 프로젝트> 현대 무용극장의 연극 <페스트 21>로 막을 내리게 된다. 이 연극은 알베르트 카뮤의 소설 <페스트>를 연출한 것으로 4월 16일 15시 체호브센터의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그리고 축제 일환으로 아마추어 연극단 단장과 단원들을 위한 여러 마스터클래스와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도 진행할 계획이다. 강의와 실습의 초대 강사로는 하바롭스크지역 음악극장 예술담당, 연극활동가동맹 하바롭스크지부 부장이며 하바롭스크 국립문화대학 감독 및 연기과 과장 세르게이 리스토파도브와 감독과 무용가이자 교육자인 페르포메르, < PG Project>상트페테르부르그 무용극장 관장 세르게이 메드웨제브가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주민속창작센터가 전했다.

Театральные коллектив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фестивале "КАФЕДРАма"

Областной фестиваль народных драматических театров "КАФЕДРАма" пройде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14 по 16 апреля. Учредитель фестиваля —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аторы — рег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В фестивал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театральные коллективы области, существующие не менее 2 лет, имеющие богатый репертуар сценических постановок. На сцене ГДК "Родина" зрители смогут увидеть спектакли народных театров из Александровска-Сахалинского, Ноглик, Охи, Холмска, Поронайска, Анивы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пектакли будут идти в течение трех дней в разное время.

Завершит череду показов Chuma21 — спектакль приглашенного из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современного и быстро набирающего творческие обороты физического театра PG Project по мотивам произведения Альбера Камю "Чума". Их выступление пройдет 16 апреля в 15:00 на сцене театрального центра имени Чехова.

Также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для руководителей любительских театраль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области и их участников пройдет ряд мастер-классов и курсы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Курс лекций и практических занятий будут вести приглашенные педагог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ево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театра,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ления хабаров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театральных деятелей, заведующий кафедрой режиссуры и актерского мастерства Хабаров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нститута культуры доцент Сергей Листопадов, и режиссер, хореограф, педагог, перформер, руководитель физического театр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PG Project Сергей Медведев, сообщает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43-67-85, 43-59-80 (с 10.00 до 15.00).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RADIX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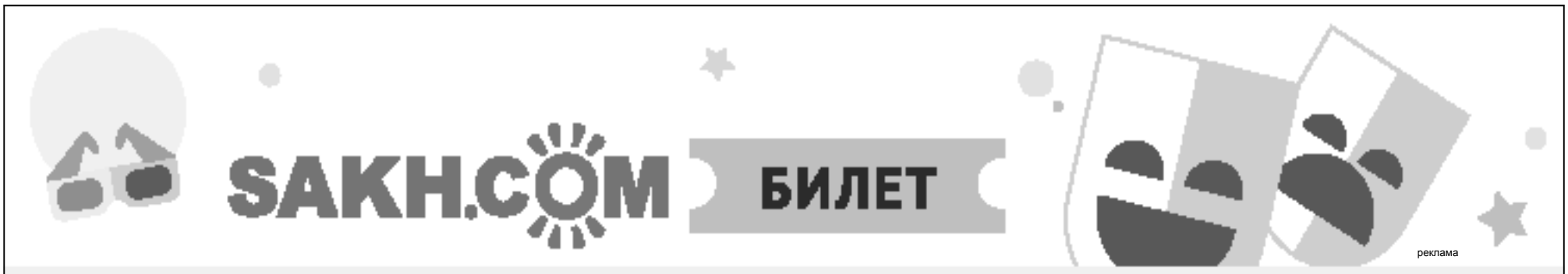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17 год.**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1 месяц - **75 руб. 7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윅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